

07 연례보고 08

현대미술과 소통... 자유로움의 미학 마음껏 즐겨라

광주비엔날레 지상전 ㉔ 본전시장 하이라이트

세계인들의 미술축제로 자리잡은 2008 광주비엔날레가 5일 개막을 시작으로 66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. 사상 처음 주제없는 전시로 치러지는 이번 비엔날레는 본 전시장인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을 비롯해 광주시립미술관, 의재미술관, 대인시장, 광주극장 등을 전시공간으로 활용, 시민들을 역동적인 미술축제의 장으로 끌어들이는다. 비엔날레 기간 동안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대표작들을 2차례에 걸쳐 나눠 소개한다.

사진=위직량기자 jrwi@kwangju.co.kr



▲ '무수한 세월 동안' 제3 전시관에 전시되는 휴마 브하비(파키스탄)의 '무수한 세월 동안 흙먼지 속에서 희망은 다시 솟는다'. 아득한 과거와 미래의 종말론을 비판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.



▲ '와이드 화이트 플로'

제 2전시관에 설치된 한스하케(독일)의 작품. 바람을 불어 넣어 넣어 가벼운 하얀 실크천이 펴리게 하는 가로 18m, 세로 18m의 대형 작품이다.



◀ '노란색 케이크'

제 4전시관에서 만날 수 있는 토마스 데만드(독일) 작품. 로마에 위치한 니제르(Niger) 대사관을 종이 모형으로 만든 뒤 사진으로 찍은 작품으로 지난 2001년 니제르가 농축우라늄(일명 Yellowcake)을 도난 당한 사건을 소재로 했다.



▲ '발가 벗은 신부'

제2 전시관에 자리한 모나 마주크(이집트)의 대형 벽화 작품으로 곤충과 바이러스에 감염된 인간의 변형된 모습을 다양하게 표현했다.



▲ '향수에 젖은 소의 경우'

니나키벨(미국)의 설치 작품. 현대인들의 '관계 맺음'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작품으로 제3 전시관에 설치됐다.

